

Open Doors

2020. 05. Vol. 217

박해와 선교현장

나이지리아 *Nigeria*

현장스토리 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교회의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윤상덕 목사(일산교회 담임, 한국오픈도어 이사)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졌던 엄청난 전쟁,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픔이었던 제2차세계대전. 그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은 2,500만명, 민간인 희생자는 3,000만명이었다고 하지요. 그때 그곳은 분명 지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자의 수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세계에 미친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어찌 세계대전에 뒤진다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일산교회는 1933년 4월 16일, 일산골에 개척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944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해방되지 않았다면, 아마 문을 닫은 기간은 더 늘었겠지요. 그 당시를 사셨던 어른들이 또 다시 코로나로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하는 충격은 젊은 목회자인 제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른들께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영상 예배를 흔쾌히 동의해주셨고, 오히려 담임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가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른의 역할 곧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 23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직 일각에서는 문을 닫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의 리더십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학원가에 위치한 교회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빨리 영상예배를 결정해야 했습니다(물론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영상 설교에서 풀러신학교 총장으로 섬기셨던 리처드 마우 교수님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시민교양이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가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문을 닫은 2월 23일 주일 이른 아침, 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저녁 뉴스 시간에 내보내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교회의 대표가 아니고,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목사님의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며 사양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날 인터뷰했으면, ‘의식있는 목사’ ‘의식있는 교회’로 이웃 사회에 알려졌겠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찾아오신 PD님께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교회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한국 교회를 편가르기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PD님도 기꺼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방역당국의 7대원칙을 존중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영상예배로 전환하거나, 현장예배를 진행하거나, 그것은 모두 드러난 현상일 뿐,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과 그 예배의 결과 교회들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기약도 없이 예배당 문을 닫기로 결정한 어린 담임목사의 결정을 지지해주시는 7-80대 어른 장로님들의 격려가 참 따뜻했습니다. 주님과 공동체 사랑의 마음으로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현장 예배를 조심히 드리는 교회들, 사회를 의식하며 영상예배로 전환한 교회들.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다만 한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난리인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몸된 교회가 참으로 고요히, 진정성 있게 온 세상과 선교지에서 리더 역할을,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4



06



12



16



18

CONTENTS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3)
- 06 박해와 선교 현장
나이지리아 Nigeria
- 12 현장스토리 1
Harmattan의 고통
- 16 현장스토리 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 18 국제오픈도어 캠페인 - 2020 “희망의 씨앗”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후원자 스토리 - 웨마기독교학교 번역섬김이들
- 23 오픈도어 후원 캠페인
알림광고

OpenDoors 2020년 05월호 | 통권 21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박미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트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23)

드보라

교회를 소개해준 조선족 언니는 나에게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서원을 했다고 해서 꼭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는 잘되었다면서 그러면 신학교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다. 덕분에 모 신학교 가서 상담도 받고 서류도 제출해서 합격 공지가 떴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합격 사실을 알려면서 나에게 알려준 사실은 등록금을 꼭 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도 학교를 가기 위해 뇌물을 쓰기도 하긴 하지만 등록금이라는 개념은 생소해서 나는 언니한테 물었다.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날 도와주던 조선족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불안해 보였을까 싶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통의 탈북민들의 상식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혹시 등록금을 구할 수 있는지 이곳 저곳 알아보았다. 내가 아는 곳은 하나원에서부터 들은 남북하나재단이었는데 알아보니 35살이 넘으면 대학 학자금 지원이 안된다고 했다.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언니와 나는 백방으로 돈을 구해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언니는 정말 열심히 나를 생각하며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다녔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구하려 다니지 않았다. 너무 이곳 물정을 모르다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하며 천하태평이었다. 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안절부절하며 더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

한번은 언니가 후원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목사님께서는 등록금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대뜸 나도 모르게 “네, 등록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라고 말해버렸다. 목사님은 등록금이 이미 준비된 줄 아시고 “아 잘 되었네요”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하자 언니는 “아이고...” 하더니 곧 “그래 네가 한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니 이루어질줄로 믿습니다” 했다. 나와 언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면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고 깨끗하게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 안 다니게 되면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같이 성경 통독하자는 이야기도 했다.

그 때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성도님이 언니에게 갑자기 신학하는 탈북민 있느냐 문의하셨다. 언니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언니는 깜짝 놀라서 딱 있다 근데 어떻게 아셨냐?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 앞에서 삭히고 마음을 추스리며 기도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에 ‘아들에게 쏟았던 마음을 이제 탈북민을 위해서 쏟으며 봉사하라’ 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다고 한다. 사연을 전해 들으며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타인, 그것도 얼굴도 이름도 모

르는 북에서 온 나 같은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는 개강을 2일 남겨놓고 극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생활은 참 즐거웠다.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학생으로 앉아있는 것이 행복했다. 남한 교우분들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다가도 참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특히 나이 있는 한 언니가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었다. 하루는 그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 북조선 애미나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하고 어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도 “야 그 말 너무 맞는 말인데 웃긴다” 하면서 웃었다.

그 남한 신학생 언니가 하루는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북한을 품게 하신다면서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중국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나도 중국 쪽이라면 가이드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언니는 나에게 같이 중국에 가보자고 부추겼다. 어렵사리 결심하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기 전엔 주저함이 있었는데 막상 중국행 비행기를 타니 꿈만 같았다. 중국에서 살 때는 해외 나가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러러봤는데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오다니 꿈만 같았다. 마치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타고 내린 중국의 모 도시는 내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던 곳이었다. 이곳에 갈 일은 잡혀갈 때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기분이 남달랐다. 이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공안차에다가 지나갈 때마다 니하오를 외쳤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도 주시고 대한민국 시민권도 더하여 주셨다.

중국에는 1주일 정도 돌아보았다. 꿈에 그리던 백두산도 올라가보고 내가 팔려가서 살았던 시골도 가 보았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가는데 영화 시작할 때 늙은 사람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이 그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숨어다니고, 쫓겨다니고, 공안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혹시 고향 물어볼까봐 말도 섞지 않고 피해다녔던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가만히 나를 안아주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감성 여행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며 살피는 중에 이번 여행을 함께 안내해 주었던 조선족 사역자 분이 우리에게 북한 엄마를 두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냐고 했다. 엄마를 잃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내가 북송 당했을 때 함께 간했던, 북송된 여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새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 두고 온 아이 이름을 꿈에서 부르다가 깨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중 몇몇은 죽어서 나가던 그 떠올리기 싫었던 참혹한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간 북한의 보위부, 집결소, 또 교회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을까... (계속)



〈2011년 KBS 취재파일 ‘호적없는 탈북자녀’에 소개된 명진. 4살배기 명진은 2살 때 어머니가 북송당했고 중국동포인 아버지도 집을 나갔다. 북한 여성이 제 3국에서 낳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어머니를 잃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KBS)〉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나이지리아 Nigeria

인구 : 200,962,000 명

주요 종교 : 기독교(46.7%), 이슬람교(46.1%)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93,791,000 명(46.7%)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12위, WWL2019- 12위

기독교박해 지수 : 80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교 압박, 독재정치, 조직화된 부정부패와 범죄, 종족과 민족적 반목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나이지리아의 점진적인 이슬람화 추진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나이지리아에 영국 식민지가 시작되기 이전, 1804년에 한 풀라니족 급진주의 이슬람 학자인 단 포디오(Usman Dan Fodio)가 이슬람 지하드 운동을 시작해서 1808년에 소코토(Sokoto)에 칼리페이트(이슬람 칼리프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는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남부 대서양까지 칼의 힘으로 이슬람을 심었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이슬람화 운동은 1999년 개정헌법과 함께 북

부나이지리아에서 샤리아 법을 도입한 샤리아 주들이 생겨나면서 큰 추진력을 얻었다. 그 후로 폭력적인 수단과 비폭력적인 수단을 모두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2015년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 당선 이후 전례 없는 탄력을 받았다.

부하리 대통령은 국방, 경찰, 이민국,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공무직에 수많은 무슬림들을 임명했다. 이는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희생되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책임없이 저지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들의 만행은 처벌받지 않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부하리 대통령의, 명백히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APC당이 권력을 잡은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더욱 맹렬하고 대담해졌다. 크리스천들은 보코하람의 공격에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IS의 분파인 ISWAP와 대부분 무슬림 유목민인 풀라니족 무장세력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정부는 풀라니 유목민들이 자행한 공격과 납치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풀라니 족의 공격들로 나이지리아 중부지역 기독교 공동체들이 황폐화되었다. 기후변화, 환경악화, 인구증가 등의 요소로 무슬림 풀라니 유목민들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들의 폭력은 무슬림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크리스천들은 실존적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크리스천의 생활은 어떤가?

북부나이지리아 특히 샤리아 주에서 크리스천들은 2류 시민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기독교 신앙의 포기를 강요받는다.

일부 북부 주에서는 점점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신앙을 털 명백하게 만들고 공격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무슬림처럼 옷을 입고 있다. 이들 주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독교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교회 건축 허가 신청은 무시된다.

크리스천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에서 폭력으로 인해 실항민/국내난민이 되면, 정부의 구제품이 배급될 때,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된다. 현 상황은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어렵다. 그들은 보통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지하로 도피하기도 한다. 북부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종종 집에 피신해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고 있던 주를 벗어나야만 한다. 이것은 기독교인구가 많은 남서쪽에서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남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낮다.

정부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크리스천에 대한 폭력사건들을 단순한 '분파주의 폭력', '자치단체 충돌', '민간 소요' 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박해가 감추어진다. 이를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박해 이클립스'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위책으로 보코하람, ISWAP, 풀라니 족, 갱단 등의 폭력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박해 이클립스' 위험이 더 증가된다.

주된 박해 요인

*나이지리아는 2019년 세계 테러영향국가 3위에 올라있고, 이 순위는 2015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 보코하람(Boko Haram)과 ISWAP(서아프리카지역IS)

1980년대 폭력 운동 전통과 함께 1999년 샤리아법의 도입으로 인해 북부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이슬람 지하디스트 공격의 표적이 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몇 년 전부터는 급진주의 이슬람 보코하람이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인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2014년 보르노 주에서 이슬람 칼리페이트(칼리프가 다스리는 곳)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들의 칼리페이트 확산 운동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여전히 폭력으로 수천명,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주고 크리스천과 무슬림 사이의 불신을 기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이웃 국가들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이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과 기타 국가들에서 대원을 모집한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활동이 어려워져도 쉽게 다른 나라에서 재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 보코하람에서 갈라져나온 분파, ISWAP(서아프리카지역IS)가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들의 활동은 보코하람과 매우 비슷하지만 종교적 표현 방식이 차이가 있고, 보코하람이 주로 카메룬과 접경하는 주들에서 활동하는 반면에 ISWAP는 주로 차드와 가까운 북부 주에서 활동한다. 보코하람과 ISWAP 모두 IS에 충성을 맹세한다. *ISWAP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천 11명을 참수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다.

2. 무슬림 하우스(Hausa)/풀라니(Fulani)족 유목민

보통 풀라니 유목민으로 알려진 이슬람 공격자들의 공격 또한 빈번하다. 이들은 중부지역의 크리스천 마을들로 내려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포함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공격한다. 살인, 강간, 파괴를 일삼는다. 크리스천이 대다수인 마을들에 대한 이들의 폭력은 이제 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주, 플라토 주와 같은 곳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더 남쪽으로까지도 내려간다.

3. 미확인 갱단/괴한들

보코하람과 ISWAP 외에 제3의 폭력적인 공격자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북동부에서 북서쪽과 중부 쪽으로 폭력이 확대되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괴한들의 준동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갱단들은 살인과 강간, 약탈, 방화를 하고 납치와 유괴를 하여 몸값을 요구한다. 10세의 어린 소녀까지 납치한다. 희생자들은, 그들이 수시로 “개중 하라 안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4. 조직적 부패

나이지리아에서 부패는 주된 문제이다. 종교에 관계없이 무슬림이든 크리스천이든 다 관여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직한 주지사들 가운데 오직 3명만이 부패 죄로 기소되었는데 모두 3명 모두 크리스천이다. 무슬림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적 부패 상황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들은 주로 이러한 조직적 부패의 산물이다. 폭력공격들이 지속되는 것은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갈등 산업’이 생겨나고 폭력범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폭력단체에 무기를 팔거나 보코하람, ISWAP 유니폼 같은 것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내고 정부 치안 담당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 치안관계자의 85% 이상이 무슬림들이다. 조직화된 부패에 책임이 있는 최대의 범죄자는 정부와 집권당이다.

WWL2020 나이지리아 박해보고

(2018년11월1일~2019년10월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1,350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804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245명
공격받은 교회 수	150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2,500건

2019년 폭력 공격 사례들

- 2019년 2월13일, 잠파라(Zamfara) 주 구사우(Gusau), 성공회(Sokoto교구) 신부 납치 살해, 함께 납치된 아내와 자녀들 아직까지 행방불명
- 2019년 4월29일, 아다마와(Adamawa) 주, 마다갈리(Madagali), 보코하람 무장세력이 크리스천 마을(Kuda)을 습격하여 30채 이상의 집에 불을 지르고 23명을 죽임. 그 중 20명이 크리스천.
- 2019년 5월8일, 타라바(Taraba) 주, 라우(Lau) 지역, 풀라니 족 유목민 한 명과 현지 농부 한 명의 다툼을 시발로 몇주간 동안 보복공격이 이어짐. 65명이 죽고 18개 마을이 불에 탐. 희생자 대부분이 크리스천. 교회 15개와 초등학교 2곳, 보건소가 불에 탐.
- 2019년 9월28일, 플라토(Plateau) 주, 리움(Riyom), 풀라니 족에 의해 파괴된 고향마을로 돌아가 집을 재건하려던 국내난민(IDP) 4명이 괴한의 총에 죽음.
- 2019년 10월3일, 카두나(Kaduna) 주, 치쿤(Chikun), 풀라니족 말을 쓰는 괴한들이 크리스천 스쿨(Engravers College Kakau)의 여학생 6명과 교사 2명을 납치하여 몸값 요구.



2020년 박해사례

기독교 지도자 라완 안다미 목사님 순교

1월 3일, 나이지리아 아다마와 주에서, 사람들이 새해를 축하하고 있을 동안에, 총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달아나며 대소동이 일어났고, 공격자들은 몇시간이나 마을을 휩쓸며 식량과 귀중품을 약탈해갔다. 총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달아나며 대소동이 일어났고, 공격자들은 몇시간이나 마을을 휩쓸며 식량과 귀중품을 약탈해갔다. 그리고 보코하람 소속의 이 무장세력은 기독교연합회(CAN:Christian Association of Nigeria) 의장인 라완 안다미(Lawan Andimi) 목사님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다 결국 1월20일에 목사님을 참수했다. 라완 목사님의 유가족으로는 사모님과 9명의 자녀들이 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연합회(CAN)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관련된 이슬람 지도자들의 체포를 요구했다. 그리고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전성도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계속적인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는 상황과, 라완 목사님의 유가족을 위해, 또한 보코하람에 납치되어 있는, 레아 샤리부를 비롯한 소녀들을 위해 기도했다. 국제오픈도어는 라완 목사님 가족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북부나이지리아, 코로나19 봉쇄 중에 더 많은 공격

나이지리아 북동부 플라토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풀라니(Fulani)족의 무장공격이 크리스천 마을에 계속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싸(Bassa) 지역의 주로 크리스천들이 사는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들이 일어나 3월 마지막 주부터 벌써 31명이 죽임을 당했다. 정부군은 항상 공격자들이 떠난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

최근 4월14일에도 미양고 근처 마이양가(Maiyanga) 마을 후라(Hura) 주거지에 공격이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격자들은 저녁 8시쯤 도착했다. 이들은 총과 칼(마체트)로 16세 이하의 어린이 4명과 1



명의 임신부를 포함하여 9명의 주민을 죽였다.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최소한 33채의 집이 이들의 방화로 파괴되었다. 이 공격으로 250명의 주민들이 거처를 잃고 생존수단 없이 마을을 떠나야했다.

바싸 지역은 벌써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다. 4월7일에는 그부라종고(Gbra-Zongo)마을이 공격을 당해 34세의 복음주의교회(ECWA) 목사(Matthew Tagwai)와 10세 소년(Isahku Abba)를 포함해서 4명이 죽었다.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공격자들은 검은 복장을 하고, 여섯 명이었으며 공격은 한시간 가량 계속되었다. 이것은 2 주 만에 다시 일어난 공격으로, 3월24일에도 이들은 밤에 가정집을 습격해 3명의 어린 아이들과 2명의 여성을 죽였다. 4월1일에는 바싸 지역의 훌케(Hulke)와 응키에도로(Nkiedoro) 마을에서 무장공격으로 7명이 죽고 23 가구가 방화를 당했다. 15채의 집은 전소되었다. 다음날 4월2일 밤 10시에 무장공격자들이 다시 돌아와 새벽 1시까지 총을 쏘고 집들에 불을 질렀다. 이 공격으로 3명이 죽었다.

3월31일 밤부터 4월1일 새벽에 풀라니 민병대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미양고 부근 안차(Ancha) 마을을 공격해서 남성 2명과 여성1명을 죽이고 집들에 불을 질렀다. 스테파노스 파운데이션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여성은 임신 3개월이었고 17 가구가 집안의 식량과 차량, 오토바이 모두 불탔다.



바싸 지역에 있는 이리그웨(Irigwe) 킹덤 교회 은퇴 목사(Ronku Aka)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한 살육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매일 우리 교인들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안전을 약속하지만 여전히 공격자들이 와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러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 유목민(플라니족) 민병대와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집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유목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됐어요.” “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가 왜 이 유목민 공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층을 불문하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으로 취급된다면, 우리 이 낮은 계층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나면 정부는 누구를 통치할 건가요? 결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 시골 농부들이 도시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면 올해 ‘기아가 만연’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처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주님의 위로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이지리아 개신교회

15세기와 16세기 포르투갈 지배 시기에 최초로 기독교가 소개되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지리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프리카 전통종교를 믿었다. 그후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철폐하면서 나이지리아에 기독교가 다시 소개되었다.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던 해방된 노예들이 원주민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로, 최초의 나이지리아 성공회 사제, 사무엘 아자이 크라우더(Samuel Adjai Crowther)는 요루바랜드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성공을 보고 감리교, 침례교, 카톨릭 등이 모두 나이지리아 선교에 박차를 가했고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가 번성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이미 무슬림인 하우사-플라니 부족왕국이 있었고 영국식민지의 직접 관할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50년대 이후로는 오순절 교회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들이 30%를 이룬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성장했고 배타적 무슬림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전도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고 신학교를 열고 더 많은 목회자 훈련이 이루어졌다. 크리스천들의 자기정체성도 강화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 보코하람과 ISWAP의 공격을 받은 북부 시골지역에서는 교회출석율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공격을 받은 교회들도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모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3,000명(0.0%)
카톨릭	24,555,000명(26.2%)
개신교 기성교단	60,964,000명(65.0%)
독립교단	27,913,000명(29.8%)
무소속	147,000명 (0.2%)
이중 소속	-19,791,000명(-21.1%)
합계	93,791,000명(100%)

나이지리아 지역별 기독교인 비율

- 북부 12개 주(Bauchi, Borno, Gombe, Jigawa, Kaduna, Kano, Katsina, Kebbi, Niger, Sokoto, Yobe, Zamfara) : 이슬람법인 샤리아 법을 시행하는 일명 샤리아주, 인구 76,390,000명 중 11,399,000명이 기독교인-15%
- 중부 7개 주(Adamawa, Benue, Kogi, Kwara, Nassarawa, Plateau, Taraba) : 일명 ‘미들 벨트’ 인구 29,312,000명 중 14,645,000명이 기독교인- 50%
- 남부 17개 주 : 인구 93,249,000명 중 65,828,000명이 기독교인- 71%
- 수도 아부자(Abuja FCT) : 인구 1,078,700명 중 기독교인 40%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와 후원

-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폭력은 종종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부상, 재산 상실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폭력을 통해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땅과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주시요.
- 나이지리아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탄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그들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요.
-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나이지리아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신적 보살핌, 시골 교회의 재정 안정, 새신자, 성도,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적, 실제적 지원, 표적공격을 받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관련 지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박해 대비 훈련
 - 기독교교육 교재
 - 다양한 총체적 목회 프로그램
 - 새신자 교육 및 제자훈련
 - 목회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 박해받는 기독교인/교회 법률지원
 - 트라우마 상담/치유 프로그램
 - 긴급 구호

트라우마 치유 사례

14살 때, 이야나다는 마을이 공격당하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예가 되어 어느 순간 강제 결혼을 당했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밤, 이야나다가 딸을 임신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그녀는 탈출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부모님과 재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이야나다를 조롱했고 그녀의 아이들을 멀리했습니다. 오픈도어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그녀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한 쓰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픈도어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야나다)



Heartache in the Harmattan 하르마탄의 고통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서아프리카는 '하르마탄' 시즌을 겪습니다. 하르마탄은 가뭄과, 식량의 부족, 추위가 따르는 고통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또한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두터운 먼지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르마탄 헤이즈(안개)'라고도 불리는 이 먼지층은 몇주간이나 서아프리카 나라들, 마을들, 가정집들 위에 머물며 집 안팎의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아프리카를 덮치고 있는 급진적 이슬람에 대한 생생한 비유 같기도 합니다. 하르마탄 먼지구름처럼 이슬람 급진주의의 영향권에서도 탈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4월28일, 오토바이를 탄 이슬람 무장대원들이 부르키나파소 실가지(Silgadji)의 작은 마을 한 교회로 왔다. 정오쯤 되었고, 교회예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모든 휴대폰과 신분증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 걷어다 강대상 옆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피에르(Pierre Quedraogo) 목사님에게 이런 장면은 놀랍지가 않았다. 목사님은 이런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예배를 드렸고 그 모습은 영상으로 남겨졌다.

"우리는 여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피에르 목사님은 이슬람 무장대

원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목사님과 여섯명의 성도들을 밖으로 끌고나가 처형했다. 피에르 목사님과 아들,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고의 대가를 치렀다. 여섯명 중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새로운 서부아프리카 최전선이 되었다. 급진적 이슬람 이데올로기가 잔인한 공격을 날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똑같은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말리와 같은 곳에서 수년째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무슬림들이 8세기에 북부아프리카를 점령한 후로, 이슬람의 영향은 무역과 포교활동, 무장 충돌을 통해 아

프리카 남쪽으로 퍼져왔다. 16세기까지는 온건한 수피(Sufi)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더 폭력적인 이슬람이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슬람 포교자들과 이슬람 NGO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 산유국들의 자금으로,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더욱 악화된 점은, 가다피 사망 이후로, 리비아에서 무기들과 지하디스트들이 남부 지역으로, 특히 건조한 북부와 비옥한 남부 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사헬(Sahel)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약해서 때때로 반란군이 일어나고 무장단체들의 힘이 확대된다. 이러한 무장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샤리아법을 시행하거나 칼리페이트를 세울 정도로 성공하지는 못한다해도, 불관용의 극단주의 이슬람 버전을 퍼트려 주민들을 급진주의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아프리카 많은 지역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가 청소년들이다. 남편 피에르 목사님과 아들을 잃은 라키에타 사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라키에타 사모와 남은 5명의 자녀들은 순식간에 무장세력의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남편과 아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트라우마와,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이다. 희생자들은 폭력의 트라우마와 함께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가난으로 내몰리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으로 절망감에 싸인다.

박해와 함께하는 오픈도어가 이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한가지 또는 일치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사역에서, 이러한 일을 겪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복수하는 집단에 가담하게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절망의 수렁으로 가라앉습니다.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세번째 반응은 다릅니다.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려 오신 것을 보게 되면 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강한 믿음이 생기려면, 집중적인 제자훈련과 함께, 더 큰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오는 정서적 물리적 도움이 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픈도어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급진적 이슬람의 피해자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통합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해대비훈련, 제자훈련, 경제적 지원, MBB 사역, 리더십 훈련, 트라우마 치유가 포함됩니다. 여기 오픈도어 프로그램에 대한 몇몇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메이즈(옥수수) 1000자루를 수확할 거예요 - 카메룬의 마무두

2016년 오픈도어는 카메룬 북부의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수입창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콩 농장이고 다른 하나는 메이즈(옥수수) 농장입니다. 현장 오픈도어 사역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격려했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교단 소속 성도들이 함께 일하도록 했지요.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같이 일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나 어떤 유혹에도 맞설 수 있게 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메이즈(옥수수) 프로젝트는 첫 수확으로 50자루를 생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다음 시즌 농사를 위해 심었습니다. 이들은 5년 후면 1000자루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 시작했는데 13명만 계속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믿지 못하고 수확이 안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초기의 어려움을 보고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해냈고 오늘 우리가 얻은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이 프로젝트를 하도록 도와 주신 분들께 우리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 우리 모두 메이즈 한 자루씩 가져갔어요 그걸로 우리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한편, 이들은 식량 수확 이상의 더 숭고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농부 중 총무 역할을 하는 아바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메이즈를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높은 가격으로 팔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데 먹잇감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다르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난을 줄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 니제르의 다니엘과 파티마

다니엘과 아내 파티마는 40년째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들은 오픈도어의 지원으로 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는 동안 병원 직원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료소를 열었어요."라고 파티마는 말합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진료소를 열도록 도전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제가 우리 마을에 진료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지요." 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역을 축복해주셔서 3개월도 안되어 우리는 더 큰 장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 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이지리아에서까지 우리 진료소



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진료소를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파티마는 오픈도어의 여러가지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전인적 사역과 SSTS세미나와 훈련 뿐만 아니라, 수입창출 대출 지원도 받았습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해서 주님을 섬기는거죠. 말라리아 시기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많은 가난한 주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약을 사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한 무슬림 교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딸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진료소에 왔어요. 그 딸은 너무 약해서 걷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녀가 궤양으로 고생하는 걸 찾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나아졌어요. 아버지인 무슬림 교사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고쳤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건으로 우리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돕고 있다고 느낍니다."

경제적 도움과 기쁨과 평안과 화해를 주셨어요 - 차드의 다마리스

32세의 다마리스는 세 딸의 어머니로 차드 남동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그녀와 교회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직업관 경제관을 가르치고 자활그룹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남한테 의지해서 살았어요. 부모님께 가게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도 전업주부로만 있어야 한다고 들었지요." 다마리스가 사는 지역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비지니



스를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농사는 장려하지만 비즈니스 활동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픈도어는 이들이 직업과 비즈니스가 예배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어요."라고 다마리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그룹을 시작해서 만나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우리 그룹은 10명이 채 안되었지요. 우리는 모일때 각자 1000프랑(\$2 채 안됨)씩 내서 모았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필요할때, 그 돈을 빌려쓰고 나중에 이자를 보태서 갚는거예요. 이제 우리는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여성들이 가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삶이 나아진 것을 보게 되요. 아이들 학교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생활비의 일부를 내서 남편을 돕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모일때, 기도 제목과 우리 짐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시간을 가져요. 나는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 이 그룹이 좋아요. 우리 중 누가 필요가 생기면 같이 모여서 돕거든요. 생일이 나 장례 때도 돕고요. 각자 할 수 있는만큼 기부하고요. 제가 이 그룹에 속한 것이 정말 기뻐요." 라고 다마리스는 말합니다.

다마리스의 남편도 이제 그녀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녀가 판매할 곡식, 땅콩, 메이즈(옥수수) 물량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돕기까지 합니다.

"나는 수익을 잘 내서 우리 가족이 소 한 겨리를 사는데 보탬이요. 덕분에 우기에 쟁기질을 하기 위해 소를 빌리지 않아도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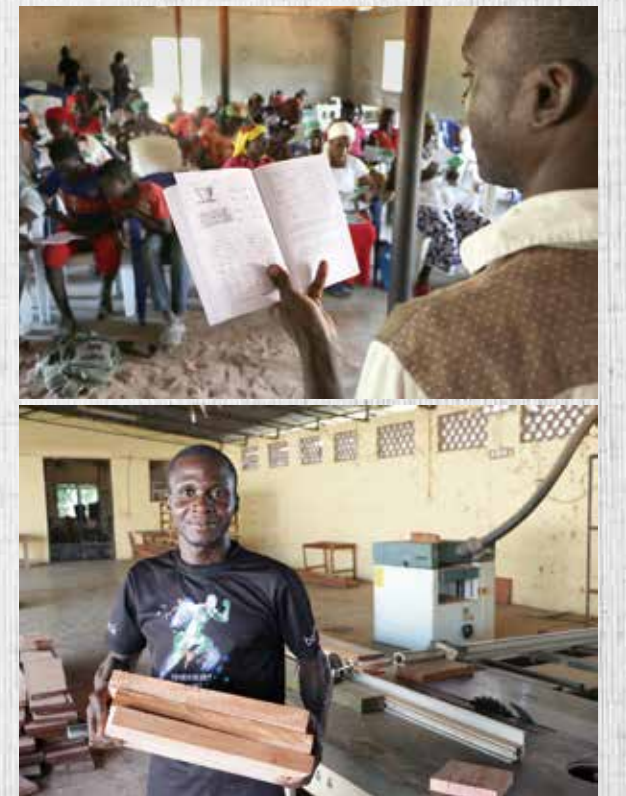
"이제 일이 훨씬 쉬워요. 한숨 돌릴 수 있어요. 농사를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이 농작물 보이시죠 그 소들이 이 농작물도 집으로 날라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훈련과 도움은 저에게 경제적 도움 그 이상이에요."

저는 이 자매들과의 연합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찾았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 진행중인 오픈도어 프로젝트들

프로젝트 내용	총비용 (간접비포함)	총 지원 개수/회수	개별단위 비용
시골 박해지역 교회지도자 훈련	\$8,742	150	\$60
교회지도자 다문화 전도훈련	\$3,018	30	\$101
교회지도자 전인사역 훈련	\$27,693	250	\$110
교회글자 교실	\$1,495	30	\$50
크리스천 농부에게 제초제 지원	\$8,735	400	\$22
MBB 직업훈련 장학금	\$7,627	10	\$763
박해피해성도 생계사업자금 지원	\$32,641	32	\$1,020
청년 직업훈련	\$13,112	200	\$66
남편 잃은 여성 생업 지원/대출	\$34,960	200	\$174





현장스토리 2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오픈도어는 코로나19 봉쇄로 생활이 어려워진 박해지역 성도들에게 식료품/도시락/생필품/위생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직업훈련에서 양재를 배운 자매는 마스크를 만듭니다.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봉쇄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계속 기도와 후원부탁드립니다.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20 “희망의 씨앗”

오픈도어는 글로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숨겨지고 배제되고 취약한, 박해 받는 크리스천들을 돕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숨겨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천 여성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리키야는
그날 밤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리키야는 집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리키야의 삶은 어려움과 상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녀 가까이 계
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그녀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사용하셔서 리키야를 그녀의
이름처럼 "주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리키야는, 남편을 잃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
서, 이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리키야처럼, 신앙과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중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희
망을 선물하고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은
없어지고, 보코하람이
우리 마을을
장악했어요.
우리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러분이 저를 구하러 왔지요.
우선, 저의 트라우마 치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흔적은 영원히 남겠지만,
상처의 아픔은 나아졌어요.”
- 리키야, 북부 나이지리아 -



▶ 희망의 씨앗 후원 ◀

30,000₩ (€ 22)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농작물 씨앗과 농기구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140,000₩ (€ 104)	남편을 잃은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1년 식량과 주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450,000₩ (€ 338)	폭력적인 박해를 겪은 여성의 트라우마 긴급치료와 장기적 영적 치유과정을 지원합니다.

희망의 씨앗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동아프리카 수단, 무슬림 민병대 크리스천 마을 습격



4월13일 월요일, 새벽 6시쯤 대부분이 무슬림인 *미시리야(Missiriya) 민병대가 *아브예이(Abyei) 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마북(Mabook)'이라는 마을을 공격했다. 마북은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지역이다. 이 민병대는 4명의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어린이 2명(7세, 8세)을 납치해갔다. 이들은 주민들의 오두막집 50채와 피난처 8곳을 파괴하고, 교회 1곳을 파괴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주민들은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 가족과 집을 잃고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들을 위해 현지 사역자들이 기도를 부탁해왔다. (주: *아브예이(Abyei)는 비옥하고, 석유가 나는 지역으로 수단과 남수단 사이에 있어 두 국가 모두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 *미시리야 족은 소를 치는 반 유목민으로 1년 중 6개월을 아브예이에서 보냄)

서아프리카 차드, 정부군이 보코하람 공격자들 응징, 이웃 국가 위해 기도 필요.

3월23일 차드 호의 한 섬에서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98명의 군인이 죽은 사건 후에, 차드 정부군은 대규모 작전을 벌여 보코하람 전사들 수십명을 죽이고, 핵심인물들을 포함한 여러 명을 생포했으며 발견된 5개의 보코하람 병거를 파괴했다. 이에 보코하람 리더, 아부바카르 쉐카우(Abubakar Shekau)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차드 국민이여, 우리를 놔두시오. 이런 작전은 코란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오. 선지자 무하마드의 뜻이 아니오. 그래도 당신들이 계속한다면 당신들보다 더 큰 알라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요...나의 전사들이여, 담대하라."

이에 오픈도어 사역자는 보코하람이 니제르, 북부나이지리아, 북부 카메룬과 같은 이웃국가로 달아나 공격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란, 아민 카키(Amin Khaki) 형제 조건 없이 석방

아민 형제는 2017년 12월 라시트에 있는 그의 집에서 보안요원들의 급습을 받고 다른 4명의 MBB(무슬림에서 개종한)크리스천들과 함께 체포된 후, 2019년 3월 재판에서 "반정부 선전과 가정교회 설립"을 죄목으로 1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체포된 다른 4명은 더 일찍 풀려났고, 아민은 지난 3월2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석방되었다가 4월6일 재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체제선전죄"로 수감되었던 또다른 MBB크리스천 자매, 록사레(Mahrokh Ghanbari)에게도 4월2일에 재수감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왔다. 이란 교회는 기뻐하는 한편 이들의 회복과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여 감옥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나이지리아, 주지사가 크리스천 소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크리스천 단체가 항의



북부나이지리아 카노(Kano)주의 주지사가 집무실에서 어린 크리스천 소녀에게 이슬람 '사하다' 기도를 암송하게 하고 이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동영상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는 크리스천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현재 나이지리아 크리스천 인권단체(CRA)가 이 공권력과 정부자원을 활용한 이 개종강요행위에 대해 항의 중이다. 영상에는 14-16세로 보이는 베키라는 소녀와 다른 소녀 1명이 나온다. 조명을 설치하고 전문가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 영상은 2월이나 3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 투옥자 형제 옥중 감사편지

아직도 이란의 악명높은 에빈(Evin) 감옥에 투옥 중인 이란의 나세르(Nasser Navard Gol-Tapeh) 형제가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인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동안 전세계의 많은 기도후원자들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한 감사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2: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성도들과 가졌던 사랑의 교제의 시간들을 철사로 둘러진 높은 담장 뒤에서 추억한다는 말과 함께 혼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돌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으며, 감옥의 담장이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COVID-19) 위기 속에 박해지역 성도들 이중고



4월2일 BBC 방송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 단체가 무슬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국가들에 침입해온 십자군들(크리스천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믿지않는(비무슬림) 국가들"에 의해 퍼졌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현장사역자에 의하면,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무슬림들을 향한 알라신으로부터의 저주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 성도들은 비난의 표적이 되는 한편,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박해지역들이 코

로나 위기로 '봉쇄(lockdown)'에 들어가면서, 노동이나 소규모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과 생필품 부족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 구호품은 무슬림이 우선이고 기독교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도어 기도월력 ‘번역섬김이’ 학생들 이야기

살롬! 웨마기독교학교 교사 박성주입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픈도어의 기도월력 영한번역 봉사를 자원한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정으로 돕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 3월부터 역사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과 기도월력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지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해 말 12월에 번역봉사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지요. 당시 뜻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중3학생들(박영진, 왕지원, 이류민) 3명을 시작으로 번역봉사모임이 탄생하였고, 작년 한해 동안은 8명이, 올해는 6명의 학생들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 명의 “번역섬김이” 친구들이 번역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효정(고1)

번역봉사를 통해 저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글로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이름을 느끼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지를 고민해보면서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을 써 내려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박영진(고2)

번역 봉사를 처음 시작했을 땐 솔직히 기독교 박해보다 번역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해 상황이 가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마을에서 겨나고 폭력을 당하는 등 박해에 대한 글을 번역할 땐 저도 모르게 무섭고 떨릴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어요. 번역을 통해 저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는 마을이 불에 타고 학살당하며 회복이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을 번역 때마다 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모습이 제겐 큰 감동이었죠.



김은수(고3)

번역봉사를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박해받으며 고난 속에 있다는 것, 또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전세계의 성도님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안위와 건강, 행복, 안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번역했던 부분은 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중앙아시아 성도님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가족, 친구와 이웃에게도 멸시당하며 살해 위협까지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참 인상깊었습니다.



왕지원(고2)

번역을 시작한 당시엔 그저 박해받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이들을 보며 이러한 믿음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박해국가 순위 1위인 북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에 취해 북한 성도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복음통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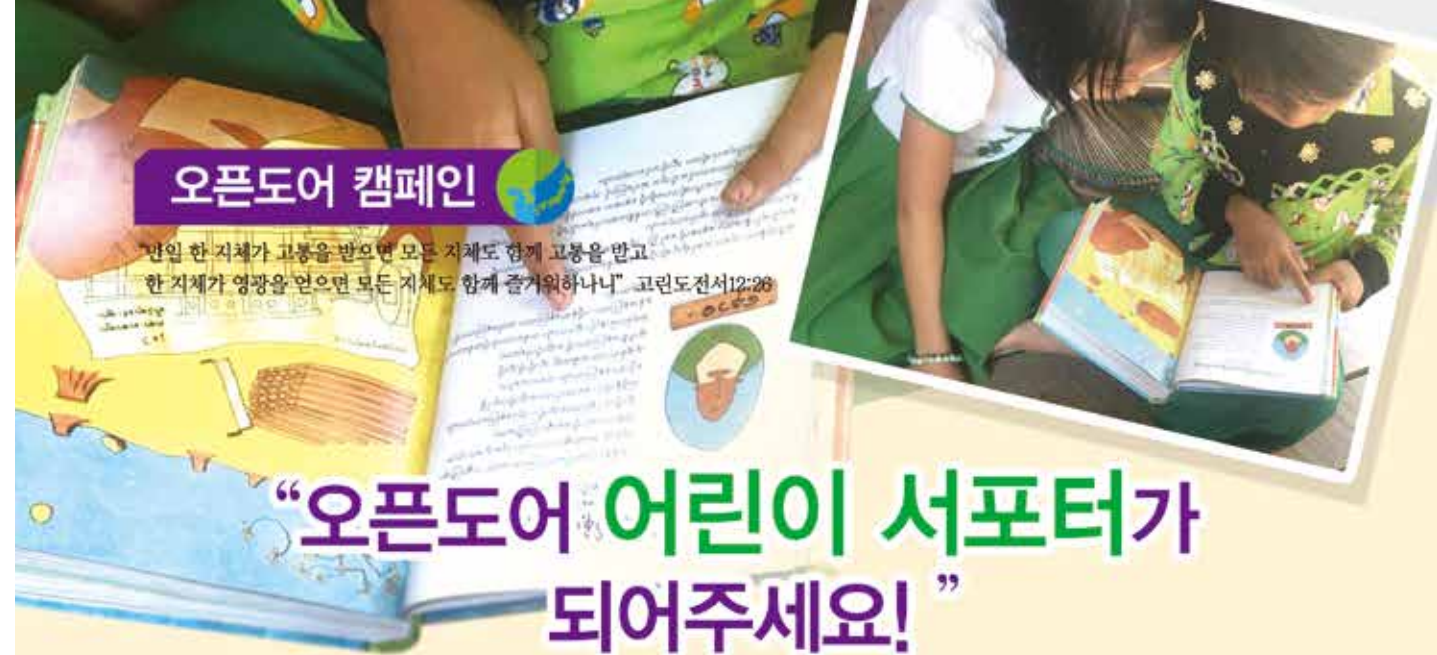
이류민(고2)

번역 봉사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박해가 심한 곳에서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데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같이 다른 종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들기만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학대당하는 사건들을 접했을 땐 정말 놀랐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장세혁(고3)

번역봉사를 통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니제르에서 이슬람 광신자들이 한 목사님을 끌고 가서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번역을 하다보면 오픈도어의 도움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신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동역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어린이박해지도(선교회로 신청)를 보면서 박해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2. 오픈도어 저금통(선교회로 신청)에 박해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요.
3. 모아진 헌금을 아래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계좌로 보내요.
4. 오픈도어 어린이 서포터 기념품을 받아요.



어린이 서포터의 후원금은 전세계 박해국가 어린이성경 제작과 보급, 주일학교 훈련/어린이 캠프개최와 참가비용, 극심한 박해지역 어린이 미술치료/트라우마 상담 등에 사용됩니다.
어린이&청소년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알립니다

- 박해받는 교회와 오픈도어 사역에 관한 강의를 원하시면 선교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월간 소식지 신청 및 정기후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을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 자료실 > 발행자료
-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선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M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박해지도는 어른용과 어린이용 2가지이며, 크기는 국2절 포스터 및 개인용 A4 사이즈 2가지입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300기도용사”를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간박해소식과 기도제목물을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를 기다립니다. 기도후원자님의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 후원금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 www.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